

# 매출 타격 클수록 재난지원금 더 받아...추경 15조 안팎 될 듯

### 당정 급주 중 추경 확정...내달 초 국무회의 상정 계획

### 감소폭 따라 2~3개 그룹 지급액 차등...최대 500만원

### 興, 소득 하위계층 일괄 지급도 건의...재정당국 난색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협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에 더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일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매출 감소율과 업종에 따라 지원금 최대 규모는 5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2~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경정예예산(추경)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율이 10% 줄었을 경우 100만원을, 30% 감소하면 150만원을, 50% 이하로 크게 줄면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앞서 3차 지원금 때는 매출 감소여부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

명)에는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번에는 피해가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등 지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500만원 선이 거론된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율에 따른 등급을 보다 세분하고, 지급 금액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

고 있어 세부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용역업체 소속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지입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세버스 기사, 폐업 자영업자, 노점상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손실 규모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는 것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계층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의 취지가 무너지고, 소득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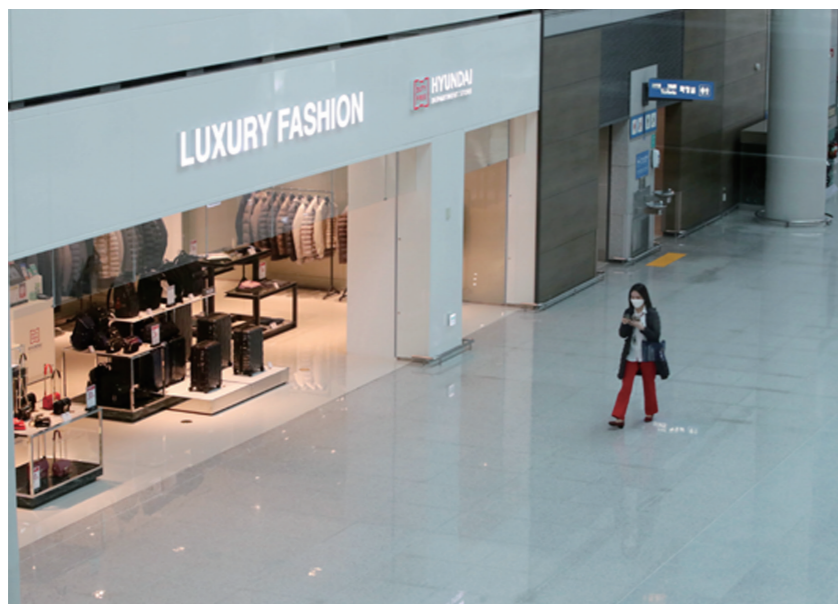
있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15조원 안팎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당은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 19 국면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 일정 등을 감안하면 3월 하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민정기자

## 면세점업계, 내달부터 특허수수료 50% 감경

###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현행 대비 50% 떨어준다.

기획재정부는 24일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분'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을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한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한다.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0.1%에서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 ▲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기본 1억원에 매출액 2000억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이상은 기본 42억원에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등이다.

전국 면세점은 2019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로 751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급속도로 확산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세점업계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 주요 면세점 매출규모는 전년(11조3662억원) 동기 대비 44.2% 줄어든 6조3449억원이다. 영업손익도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공황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동아제약, 어린이용 가그린에 '친환경' 담았다

### 재활용 용이한 인플드 라벨 적용해 리뉴얼 출시

### 판매수익금 일부는 멸종위기종 보호기금으로 활용



동아제약은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한 '가그린 어린이용' 3종(사과·딸기·풍선껌)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그린 어린이용은 재활용이 용이한 인플드 라벨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했다. 인플드 라벨은 제품 접착 화합물질을 줄여 라벨 제거

가 용이하다.

뜯는 곳 표시를 가시화해 소비자들이 라벨을 제거해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앞서 2019년에는 가그린을 담은 용기도 투명하게 바꿨다. 이와 함께 멸종 위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수리부엉이 등 총 9종의 멸종 위기 동물을 디자인에 담았다. 향후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멸종위기종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아제약 강준영 BM은 "가그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 구강 건강도 지키고, 멸종 위기 동물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제품 개발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삼성전자 개발 중인 AR글라스 추정 영상 유출

### 해외 유명 IT트위터리안 콘셉트 영상 유출

### 영화게임 감상, 갤럭시 워치텍스와 호환

### 홀로그램 영상통화 AR시뮬레이션도 구현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증강현실(AR) 글라스로 추정되는 기기의 주요 기능이 담긴 영상이 유출됐다.

21일 (현지 시간) 정보 기술(IT) 전문 트위터리안 '워킹캣(WalkingCat)'은 삼성전자 AR 글라스 관련된 2개의 콘셉트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여러 업체들이 출시한 기존의 고글 형태가 아닌 선글라스 형태로 보

다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두터운 테의 패션 선글라스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AR글라스를 쓰고 영화와 게임을 즐기는 모습,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및 PC와 호환하는 텍스트 소프트웨어와 연동으로 여러 작업도 가능한 장면이 연출됐다. 또 실제 선글라스 역할도 수행한다.

또 AR글라스를 쓰고 테이블에서

가상 키보드를 두드리고 홀로그램처럼 떠오른 화면을 보며 업무를 하는 모습, 화상통화와 AR 시뮬레이션 등을 구현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IT 매체 톱스가이드는 "삼성전자가 실제로 AR 글라스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 영상은 실제 출시되는 제품이 라기보단 내부 콘셉트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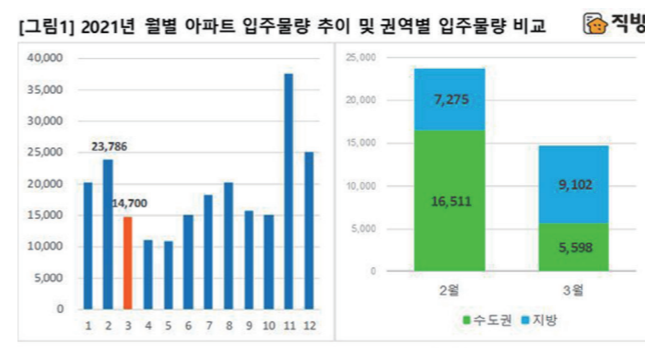
한편, 삼성전자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4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증강현실(AR)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AR글라스와 이를 구현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프로세스(AP) 개발에 한창이다. 초연결, 초실감 등을 구현해 5G 주도권 다툼에 승리기 위한 기술 리더십을 확보 하려는 의도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기술 전문기업 '디지털렌스(DIGILENS)'에 추가 투자를 단행했다. 디지털렌스는 미국의 AR 기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업체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VR용 디스플레이(HMD)에 이어 향후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AR 글라스'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서선욱기자

## 내달 전국 1만4700가구 입주...전월비 38% 감소

### 수도권 5598가구·지방 9102가구 집들이



주1) 상기 자료는 2021년 2월 1주차 조사 기준으로 관련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임대단지 및 연립 제외 / 중세대수 30세대 이상 아파트만 포함 / 단위: 세대수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4700가구로 전월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조사가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5598가구, 9102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이달 1만6511가구 대비 66% 줄어든다. 서울에서 2개 단지, 경기에서 3개 단지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마포퍼레스트티지아'는 서울시 마

포구 염리동에 위치했으며 염리3구역을 재개발 단지로 총 1694가구, 전용 59~114㎡로 구성됐다. 입주는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병적역아이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병적동에 위치했다. 총 2666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전용 59~134㎡로 구성됐다. 입주는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한다.

지방은 전국 3호 도시공원테라스(압두봉공원)으로 조성되는 단지다. 총 1112가구, 전용 63~133㎡로 구성됐다. 입주는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가오는 4~5월에도 입주물량 감소는 이어질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관교와 위례 등 주요 선호 지역 위주로 입주를 앞두고 있고 6월부터는 다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부작용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